



염중호. 예의를 잃지 맙시다. 잉크젯 프린트. 110×110cm. 2012



염중호. 예의를 잃지 맙시다. 잉크젯 프린트. 110×110cm. 2012



염중호. 예의를 잃지 맙시다. 잉크젯 프린트. 110×110cm. 2012

## 식물과의 질서를 찾다

### 예의를 잃지 맙시다\_염중호 전 하이트 컬렉션 / 6. 21-8. 10

우리 주변의 버려지고 지나쳐버리는 것들, 사람들의 관심 영역 밖으로 밀려난 변두리 지역과 같은 도시의 주변부에 관심을 가져온 사진작가 염중호가 7명 동료 작가와 진행한 협업프로젝트 <예의를 잃지 맙시다(Let's Remain Courteous)>가 청담동 하이트 컬렉션에서 열리고 있다.

염중호는 세밀한 관찰력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으로 기록, 우리의 삶을 미시적으로 살핀다. 작가는 자신의 이미지를 기록과 상상, 재현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주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들에서 간과하기 쉬운 그들의 관계와 질서를 찾는 것이 특징이다. 사물들 간의 관계성과 그 당위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들을 시각화하는 그의 이미지들은 사회의 정치적 이슈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슈를 내포하고 또 드러내는 은유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이미지들은 보는 이들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유연성은 이번 전시처럼 다른 작가들과 공유하여 협업하는 형식의 작업을 가능케 한 동력이기도 한데, 이번 전시를 위해서 염중호의 최근 작업들 중 도시 환경 속의 식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 40여 점과 그의 사진을 전달받아 영감을 얻어 새로운 작업을 시도한 7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염중호는 도심 속 식물들의 삶이 인간에게 지배되는 동물들의 삶과 유사하다는 생각에서 나아가 식물들이 마치 동물원 안의 동물들처럼 길들여지거나 재단되고 변형되어 인간의 입맛에 맞게 야생의 기운을 잃고 꾸며지고 만들어진다고 접근한다. 그는 인간 중심의 도시 환경에서 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포착, “도시 환경 속에서 식물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적응하고 극복하고 생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를 위해 그의 이번 작업은 식물의 시점에서 바라본 인간사회를 담고 있다. 일종의 의인화로서, 인간에 의해 식물에게 주어진 조건과 인간이 식물을 인지하는 태도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고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존재의 위상과 생태를 마치 식물의 입장에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다룬다. 특히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에 대한 투쟁을 자극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식물의 삶을 바라보거나 식물이 처해있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환경의 독특한 모습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언급한다.

동료 작가와의 협업 작업 전체 주제는 바로 이 '식물'에 대한 것이다. 강석호, 권경환, 김수영, 로와정, 리오넬 사바테, 박진아, 최대진 등 7명의 작가들은 염중호가 촬영한 이미지를 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반응하여 자신의 작업으로 발전시켰다. 강석호의 작업은 염중호의 작업을 회색 톤의 그림으로 그렸다. 이 작업은 강석호가

이전까지 해오던 작업과는 달리 이번 전시를 위해 그린 그림으로 이 전시 후에는 사라진다. 강석호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김수영의 작업 역시 염중호의 작업 중 무기력함이나 공허함 등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자신의 상상 속에서 드로잉으로 재구성하였고 권경환은 염중호의 사진을 선택해 그것을 페인팅으로 그리는 작업을 선보인다. 정현석, 노윤희로 이루어진 로와정은 인간을 위해 상생하는 식물들의 성격은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접근으로 식물도감과 같은 인쇄물의 식물사진을 오려 페이퍼 트리(Paper Tree) 공원을 재현했다. 리오넬 사바테는 본래 해오던 작업 중에서 염중호와의 주제의식이 병존 가능한 방식을 택해 자란 후 버려진 손톱, 굳은 살 등을 모아 장미꽃, 나비 등으로 만든 모형을 보여준다. 박진아는 서로에게 생소한 방식인 드로잉을 교환하는 일종의 그림편지 작업을 했다. 이 둘의 협업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던 방식을 통한 소통의 시도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최대진은 “염중호의 식물사진들은 오브제로 보이기도는 그 주위환경에 관련되고 반응하는 살아있는 유기물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식물들의 존재감을 은유적으로 해석하여 벽화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즉 이번 전시는 하나의 작품이 다르게 읽혀지고 새롭게 해석되어 재탄생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염중호 작가의 작업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이미지 해석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